



제목	Living in the Ottoman Ecumenical Community: Essays in Honour of Suraiya Faroqhi
발행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발행처	Brill
발행일	2008. 3. 1.
저자	Vera Costantini, Markus Koller(편집자)
출판도시	Leiden
페이지수	504
ISBN 또는 ISSN	978-9004165755

내용 요약

이 책은 오스만 연구의 대가 수라이야 파로키(Suraiya Faroqhi)를 기념하여 오스만 전문연구자들이 쓴 24개의 논문을 편집한 책이다. 파로키는 쇠퇴 페르다임 대신에 오스만 역사 연구의 대안적 담론을 제안하고, 오스만제국의 확장과 위기와 하락의 각 국면을 제시했다. 이 책은 파로키의 주장보다 한발 더 나아가 에큐메니칼 오스만 제국이라는 개념을 정립한다. 에큐메니칼 오스만제국이라는 개념은 물리적인 국경 바깥의 공동체 및 지역의 활동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 책은 크게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오스만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의 다양한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활동(Istanbul-Activities of Different Ecumenical Communities in the Ottoman Capital)’이다. 여기서 이스탄불은 폭넓은 경제주체들 및 국가들과 연관된 도시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중심지이자 거주지로 간주된다. 두 번째 주제 ‘오스만제국의 속주의 국경을 넘는 경제적 에큐메니칼 공동체(Economic Cross-Border Ecumenical Communities in the Provinces of the Empire)’를 다룬 섹션에서는 오스만제국의 여러 속주들로부터 제국의 중심 이스탄불뿐만 아니라 19세기 파리 박람회에도 이르기까지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세 번째 부분인 ‘오스만제국 주변의 사회적, 종교적 에큐메니칼 공동체(Social and Religious Ecumenical Communities in the Ottoman Periphery)’에서는 오랫동안 오스만제국이 향유하고 협상했던 다양한 관계들을 고찰한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정치세력들 사이에 놓여있는 지중해 에큐메니칼 공동체(The Mediterranean-Ecumenical Communities Between Political Powers)’를 다루고 있다.